

즉시 배포용: 2019 년 2월 2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일자리와 직업 훈련 위한 오피오이드 위기 자금에 500 만 달러 이상 투입 발표

자금은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DOL)의 국가 보건 위기 재난 회복 국내 실업자 기금(National Health Emergency Disaster Recovery National Dislocated Worker Grants)의 일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가 오피오이드 사태로 인해 영향을 받았거나 받은 사람 중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을 포함한 노동자이 새로운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연방기금 최대 559 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이 자금은 중독 치료 서비스 제공자, 고통 관리 및 테라피 서비스 제공자, 정신 건강 치료 제공자 등 주 전역에 걸쳐 오피오이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직군의 노동인력을 늘리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이니셔티브로 인해, 회복 중인 사람들을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훈련하거나 약물 남용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뉴욕주 보건부(Health Department) 및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OASAS)이 하고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완성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피오이드 사태는 비극적이게도 너무 많은 뉴욕주민의 생명을 앗아갔고 아직도 계속 주 전역에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통해, 우리는 중독과 싸우는 뉴욕 주민에게 치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취업기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최종적으로 오피오이드 사태를 종결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로체스터에서 오늘의 발표를 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피오이드 사태 해결에는 회복에 힘쓰는 뉴욕 주민을 돕기 위한 창의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뉴욕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이 자금을 운용하여 이 사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노동력 개발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 자금은 또한 주 전역에서 늘어나는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회복 전문 인원을 훈련시킬 것입니다."

이 자금은 미국 노동부 취업 및 훈련 부서(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광범위한 오피오이드 사용, 중독, 남용과

연관된 경제 및 노동 분야의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취업 기회를 만들고 지원 서비스 등을 포함한 취업 및 훈련 활동을 제공합니다. 이 자금 지원으로 인해 약 700 명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기금 사용으로 인한 누적 효과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뉴욕주 노동부(State Labor)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피오이드 사태는 뉴욕주 전역에 너무 많은 지역사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독과 회복 문제에서 이 기금이 터널 끝의 한 줄기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자금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필수적인 훈련과 노동력 개발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마주하고 중독으로 고통받는 개인 및 가족에게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뉴욕주 보건부 Howard Zucker(박사)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다각적인 각도에서 오피오이드 사태에 공격적인 대응을 펼쳐 왔습니다. 이 기금은 오피오이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직장으로 돌려보내는 것 뿐 아니라, 그들의 경험을 활용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 방법을 또 하나 늘렸습니다. 뉴욕주 보건부는 보건부(DOL) 혹은 알코올 및 약물 남용서비스국(OASAS)과 협력하여 직업 훈련을 진행하는 한편,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서비스를 받도록 도울 수 있는 병원이나 지역사회 기반의 프로그램에 인력을 연결하고자 합니다."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New York State 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의 Arlene González-Sánch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독의 악영향은 멀리까지 퍼지며, 그 파괴적인 결과는 주 전역의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의 삶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꼭 필요한 자금 지원으로 인해 우리는 중독과 연관된 취업 기회를 늘리고 중독과 싸우기 위한 중요한 자원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며, 삶을 새로 세우고 장기 회복을 달성하려는 더 많은 뉴욕 주민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지원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직자,
- 오피오이드 사태로 인해 임시 또는 영구적으로 해고된 개인,
- 장기 미취업자, 그리고
-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인해 실직상태가 되거나 할 일이 심각하게 충분하지 않은 자영업자.

뉴욕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지역 노동 개발 위원회(Local Workforce Development Boards, LWDBs) 및 지역사회 기구와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기구는 오피오이드 사용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현재 받고 있거나

과거에 받은 개인과 직접 일하는 단체입니다. 지역 노동 개발 위원회(LWDBs)와 기구는 62 개 뉴욕주 카운티 중 21 개, 10 개 지역(주도 지구, 센트럴 뉴욕, 핑거 레이크스, 허드슨 밸리, 롱아일랜드, 노스 컨트리, 모호크 밸리) 중 7 개를 대표합니다.

훈련 및 커리어 서비스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그러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훈련 참가자들은 다음의 인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회복 코치, 피어 리커버리 네비게이터, 케미컬 디펜던시, 라이프 코치, 멘탈 헬스 테크니션, 베이직 라이프 서포드, 응급요원.
- 참가자들을 피어 상담자 지위에 배치하여 실지 훈련을 통해 피어 인증을 취득하게 합니다.
- 인증 알코올 중독 및 약물 남용 상담자, 인증 회복 피어 에드보킷, 인증 간호 보조, 의료 보조, 지역사회 아웃리치 직원에게 임시 재난 안정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 커리어 어드바이저와 회복 코치는 커리어 센터와 협업 기관에서 지원자들을 보조하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맡습니다.
- 모바일 피어 리커버리 네비게이터는 외래환자 관리 및 회복 서비스를 조정하고 지원자들을 위한 취업 계획을 개발하는 일을 맡습니다.

당선 이후 Cuomo 주지사는 오피오이드의 급속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이고 다면적인 접근 방법을 시행했으며, 완전한 예방, 치료,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국을 선도하는 연속적인 중독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1차 의료 환경에 있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 설문지를 이용해 약물 이용 질병을 정기적으로 스크리닝하고 적절한 치료 및 지역사회 서비스에 연결하는 적극적인 방식을 미국 최초로 채택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중독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가진 훈련 인원들이 주 전역의 응급 부서에 파견되어 과용 환자가 그들이 선택한 지역사회 기반의 적절한 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인력은 이후에도 환자의 상황을 체크하여 치료에 대한 환자의 필요가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2016 년에 Cuomo 주지사 직속 헤로인 태스크포스(Heroin Task Force)는 회복 센터, 청소년 클럽하우스, 확대된 동료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24 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면서 평가 및 진찰 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 액세스 센터(Open Access Centers) 등을 비롯한 새로운 비전통적 서비스를 권장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그 이후로 뉴욕주 전 지역의 여러 지역사회에 설립되었으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장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지사는 대부분의 오피오이드 성분 처방약의 처방 기간을 30 일에서 7 일로 줄이기 위한 법안 및 처방자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뿐만 아니라 수많은 보험 제한 사안을 제거하여 주민들이 더욱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 및 규제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환자 중개 및 중독 치료 서비스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마약 해독제인 날록손에 대한 교육 및 이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뉴욕주에서 30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해독 치료제에 대해 교육을 받은 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조치를 통해, 뉴욕주 전 지역의 약국들은 이제 처방전없이 날록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피오이스 사태와 관련된 제공자 및 개인의 자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https://www.health.ny.gov/community/opioid epidemic/를 확인해주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